

청년선교회

청년부와 남녀 선교전도회 중간층
하늘찬양팀 활약으로 위상 높아져



신앙수련회(한국기독교수양관) - 1996



헌신예배 특송 - 1996



로마서수련회(강화수양관) - 1998



신혼부부 초청 - 2003



안양교도소 방문 - 2003



미자립 송한교회 방문 - 2003

청년선교회는 청년부와 남선교회·여전도회 중간층의 30대 교인들로 구성된 자치기관이다. 매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411호실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국내 미자립교회 및 해외 선교사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격월 토요일마다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는데 이는 오랜 전

통을 가진 대표사업이다. 특별히 주일 오후예배의 찬양을 맡고 있는 찬양팀(2003년 12월부터 하늘찬양팀)의 활약으로 청년선교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주일학교

교인 700명일 때 학생 925명 시대 갈망
월2회 초등학교 정문에 가서 친구 초청



소년부 야외예배 및 백일장(서부전선 도라전망대) - 1996



유아유치부실 개실 기념 - 1996

상: 1996년 5월 19일 소년부는 김윤환 부장(맨 뒷줄 모자 쓴 이)의 인솔로 경기도 임진각 도라전망대를 초등부 어린이와 같이 갔다.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염원을 안고 백일장을 했는데 금상에 이해영, 은상에 정하은, 동상에 권서이가 뽑혔다.

중: 동년 9월 3일 104호실(20평)을 개조해 유아유치부실 개실예배를 드렸다. 그동안 413호실을 쓰다가 산업부와 청소년학교가 옮겨감에 따라 새로운 터전에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앞줄 중앙의 장하린 교장과 좌우에 황영태 지도목사·최기식 교감)

하: 동년 3월부터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에 교사들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전도운동을 벌인다. 그로 인해 매년 총 9백여명 어린이를 초청했으며 그 중 70여명이 등록 출석했다. 2003년 5월 '연동주일학교어린이전도봉사단'을 결성, 여전도회와 전도부 후원 아래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학생을 데려와 벌이는 친구초청 잔치 기념 - 2003



초등부 야외예배(태릉) - 2000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강화수양관) - 2000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분반공부 - 2000



어린이부 야외예배(백주년기념관) - 2001



유치부 봄소풍(창경궁) - 2003



소년부 야외예배(양재동 시민의 숲) - 2003



중등부 연동축제 - 2004



고등부 길거리농구전도대회 - 2004

연동어린이집

주간반 · 야간반 병행해 근로부모에 혜택
'믿음 소망으로 사랑을 베푸는 어린이집'



1996년 9월 1일 연동복지원 산하의 연동어린이집 개원에 배를 드렸다. 주무관청에서 종로구청장(정홍진)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사장인 이성희 목사가 '교회와 어린이'란 제목의 말씀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장은자 원장과 강민정 보육 교사에게 임명장이 주어졌다. 보육장소는 유아유치부실(104호)로 하고 정원은 25명,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였으나 2001년 4월 야간반을 개설해 주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동년 3월 연지동 136-25번지로 이전했다가 그 자리에 연동복지문화관을 건축하기로 해 2003년 9월 유아유치부실로 되돌아왔다. 2004년 2월 원아수는 41명, 교직원 7명, 이때까지 총 수료생은 383명, 졸업생은 5명이다.

후 7시까지, 야간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다. 동년 3월 연지동 136-25번지로 이전했다가 그 자리에 연동복지문화관을 건축하기로 해 2003년 9월 유아유치부실로 되돌아왔다. 2004년 2월 원아수는 41명, 교직원 7명, 이때까지 총 수료생은 383명, 졸업생은 5명이다.

상 : 개원 테이프 절단 - 1996
이전 감사예배 - 2001
중 : 성경암송발표회 - 2000
하 : 제6회 입학 기념 - 2002



사랑의 기금

봉헌자 수백명의 온정 해마다 이웃사랑 실천

1996년 5월 '사랑의 기금'을 모으기 시작, 이 기금은 그동안 주로 교회 내외의 환자들과 산음교회·신생교회, 그리고 실로암안과병원·원주밥상공동체에 주어졌다. 2003년의 경우 7백여명 회원에 연간 1천만원 이상이 담지하고 있는 이 기금은 해마다 열망을 더해 가고 있다.

실로암안과병원

1986년 2월 강서구 등촌 2동에 설립된 실로암안과병원(원장 : 김선태 목사)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 및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선교적 차원에서 무료로 개안수술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등촌동 병원 외에 46인승 리무진 버스와 중국 연변의 실로암안과센터 세 곳에서 연간 1천5백명에게 개안수술, 1만여명에게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동교회는 1996년 10월부터 매년 사랑의 기금에서 40여명 분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개안수술비로는 30만원이 든다.



등촌동 실로암안과병원(속 사진: 원장 김선태 목사와 어린 환자들) - 2003

원주밥상공동체

사랑의 기금이 2002년부터 원주밥상공동체에 주어졌다. 원주밥상공동체(대표 : 허기복 목사)는 1998년 4월 원주교(원주천 쌍다리)에 설립된 사회봉사 기관으로 무료급식·푸드뱅크를 비롯해 재활프로그램·취업상담·구직알선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연동교회는 교회 창립 105주년(1999년) 기념 송암봉사상(부상 : 5백만원)을 원주밥상공동체에 수여했는데 그 기금으로 자활센터인 '보물상'을 차렸으며 그 사실을 오른쪽 큰 사진(황색 바탕)과 같이 담장에 게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화재를 당했다.



원주밥상공동체 자활센터 보물상(속 사진: 밥상 열린예배) - 2003

태백연동교회

남북통일 대비한 최전방 선교기지
연동교회 무명성도 봉헌으로 헌당



1996년 11월 4일 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204-1번지에 태백연동교회를 세우고 창립예배를 드렸다.(가운데 사진) 이때 교인은 25명이었다. 동년 9월 서울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와 광산지역 선교사 최준만 목사가 만나 광산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선교기지로 삼기 위해 태백에 개척교회 설립을 합의했던 것이다. 1997년 4월 140평 부지 매입과 더불어 강원 동노회에 가입하고 동년 6월 교회당 기공예배에 이어 1998년 11월 입당예배(아래 사진)를 드렸다. 교회당 건축비는 서울연동교회 무명의 성도와 많은 성도들이 희사해 2002년 12월 3일 교회창립 6주년 기념식날 헌당식을 거행했다. 2003년 10월 교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석 교인 80명 · 권사 5명 · 서리집사 40명 · 청년 9명 · 주일학교 학생 80명.



부용찬양대

지휘 : 김억숙 · 한창석 · 윤석원 · 신경욱
반주 : 이정희 · 김숙영 · 김경아



1996년 추수감사절

11월 17일 오후 3시 부용성가대 주관으로 추수감사절 음악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연동가족의 날'이기도 한 이날 주일예배 때 이요훈 (1부) · 김선영 (2부) · 오현명 (3부) 교수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교회당 안팎에서 감사절 잔치 · 영화상영 · 가족사진전시회 · 찬양대회 · 홈비디오경연대회 · 가족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2000년 성탄절

12월 25일 오전 11시 부용성가대 주관으로 축하 음악예배를 드렸다. 이삼열 원로장로의 기도, 심근순 공로권사의 성경봉독 (마 1:18-23), 이성희 목사의 말씀 (표전시대의 성탄)에 이어 윤석원 성도의 지휘와 김행미 집사의 반주로 칸타타 '찬양의 계절' (J.M. Martin 곡)을 연주했다. 이재훈 성도가 트럼펫을 담당했다.



2001년 부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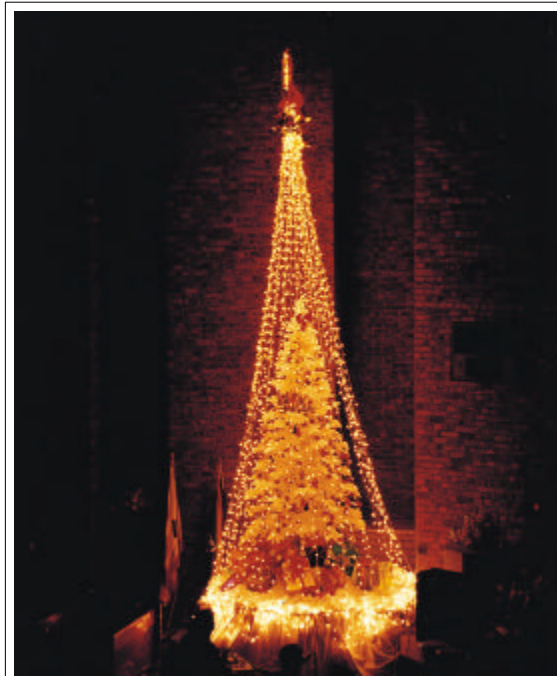
4월 15일 오후 3시 부용성가대 주관으로 축하 음악예배를 드렸다. 청년신교회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부용성가대는 J.S. 바흐의 칸타타 4번 '①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 ② 우리 죄로 사망 이기지 못하고 ③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④ 생명과 죽음의 싸움 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외 2곡을 열창했다. (사진 : 예배를 마치고)

성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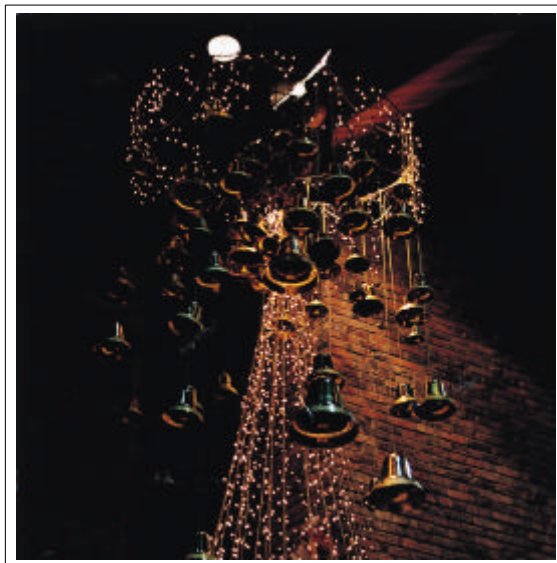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축하 음악예배 때 유아세례



성탄축하 예배 - 1996



송구영신 예배 - 1996



청소년주일학교 성탄축하 발표회 - 200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12월에 들어서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고 점등예배를 드린다. 1996년 12월 4일의 경우 그 자리에서 실로암 안과병원에 사랑의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뒤이어 25일 직전 주일에 성탄축하 예배(사진 : 상), 24일 저녁에 청소년주일학교의 성탄축하 발표회,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드리고 22명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동년 연말연시를 가름하는 시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사진 : 중)